

군산서 수소 제조공장 폭발사고

수소압축탱크 옮겨 싣다가 ... 공장 2곳 일시 정전에 2명 사상

군산의 한 수소 제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.

3월26일 오후 1시10분 경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의 한 수소 제조공장에서 수소압축탱크가 폭발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탱크에서 수소를 옮겨 싣던 전모씨와 유모씨 등 인부 2명이 부상을 입어 군산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전씨는 치료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.

폭발 충격으로 공장 방진벽 80여m와 인근 사무실의 유리창 수십개가 파손됐고, 인근 산업화학 전문기업 등 공장 2곳이 정전되기도 했다. 한국전력은 긴급복구반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전기공급을 재개했다.

또 폭발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.

경찰과 소방당국은 “인부들이 수소탱크에서 수소를 옮겨싣던 중 폭발사고가 난 것 같다”는 회사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3/26>